



From The Agony in the Garden, Andrea Mantegna,
National Gallery, London.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마르13,37)

■ 미사전례

- 제 1독서: 이사 63,16ㄹ-17.19ㄷㄹ;64,2ㄴ-7
- 화 답 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 2독서: 1코린 1,3-9
- 복음 환호송: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 복 음 : 마르 13,33-37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 답 송:

-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16 - 계시에 대해서....(1)

영성적 삶을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총 안에서 산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은총이 충분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욕심을 끊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밥이나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릇일 수 있는 이유는 비어 있어서다. 황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하더라도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릇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릇은 스스로가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욕심을 줄여나가다 보면 번뇌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그 번뇌의 빈자리에 은총이 들어오게 된다. 108번뇌를 105번뇌로 만들면 3은총이 쌓인다. 100번뇌로 바꾸면 8은총이 쌓이고, 10번뇌로 바꾸면 98은총이 쌓인다. 108번뇌가 사라지면 그때 온전한, 은총 충만의 상태가 된다.

반대로 은총이 없는 상태(정확히 표현하면 거저 쏟아지는 은총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고통이다. 욕심이 번뇌를 일으키고 그 은총을 고갈시키는 번뇌가 고통을 수반한다. 세상의 수많은 고통들은 대부분 이같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욕심스럽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은총 안에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선 불교와 달리, 이러한 인간 결단에 일종의 초월적 개입이 필요하다. 계시(啓示)가 그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불린다. 계시란 말 그대로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다. 하느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계시다. 그리스도교적 사유 안에서 인간은 하느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만을 볼 수 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느님은 무한하다. 아니, 하느님은 무한의 개념 자체를 벗어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의 '열어보여 주심'없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계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온다. 그런데 이 계시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선 아래로부터의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하느님께서 열어보여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인간인 만큼 계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인간이 개방되어 있을 때, 비로소 계시는 의미를 지닌다. 내가 열려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계시, '열어 보여주시'의 결정판이 성경이다. 따라서 성경을 봐야 무한하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 지, 무엇을 원하시는 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교의적이거나 영성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사상을 가르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다.

여기서 교의적이지 않다는 말은, 교리적 신학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교의는 창조론, 그리스도론, 신론, 성령론, 마리아론, 교회론, 성사론, 종말론 등이다. 창조와 구세사, 그리스도, 하느님, 성령, 마리아, 교회 등의 진리를 학문적 구도로 체계화한 것이 바로 교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교의신학을 목적으로 기술된 책이 아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의신학을 할 수 있다. 성경은 교의신학을 풍요롭게 한다. 하지만 성경이 교의신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영성생활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우리들의 영성생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 물론 영성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을 봐야 하지만, 성경 자체가 영성생활을 위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가자.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성경에서 뽑아서 읽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은 성경 안에서 정치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읽는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또 판관들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했는지 파악하려 한다. 의사 혹은 천문학자들도 성경 안에서 나름대로 같은 분야의 기술들을 뽑으려고 한다. 하지만 성경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천문, 의료, 교육 등을 가르쳐주기 위해 적혀진 책이 아니다. 물론 이 모든 분야는 성경을 통해 빛을 받을 수 있다. 지침 혹은 도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정치 경제 문화를 위해 적혀진 책이 아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이데올로기를 끄집어내려는 시도도 무의미하다. 편식은 곤란하다. 몇몇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경과의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가톨릭신문 제2785호 (2011년 10월 9일) -정영식 신부 (수원교구 군자본당 주임)>

성삼 소식

예비자 교리반 모집

- 개강 일시: 12월 6일(일) 오전 9:00, 성당
- 성삼 공동체의 새 가족이 될 예비자들을 초대합니다.
※“예비자 봉헌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문의: 복음화부장 임상도(스테파노) ☎213-361-4907

사목회의

- 일시: 12월 4일(금) 오후 7:00, 성당

성당 비품, 소모품 관리

-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당의 모든 비품 및 소모품을 정리하여 관리하려고 합니다. 성당 물건이나 부속용품을 빌려 가신 분들은 반납해주시거나, 사무실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성당 사무실 ☎323-221-8874

주일학교 등록

- 수업방법: 온라인 수업(Zoom)
- 대상: 1학년-12학년
- 등록: 오전 10:00 영어미사 후. • 등록비: 없음.
<https://forms.gle/TzYpp4HaWXcJxyCv9>
(성삼 웹사이트에도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별 온라인 수업시간:

학년	요일	시간
고등부	매주일	오후 1:00
중등부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2:00
4-5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00
3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30
1-2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2:00

- 문의: 이경란(젬마) ☎213-273-6797

우리들의 정성 (2020. 11. 22 현재)

교무금	6,020.00	교무금(16명) 김은민, 남윤규, 백경호, 신규원, 신동욱, 엄영근, 예영해, 오보현, 윤성한, 이윤석, 이정빈, 정승재, 주영만, 한완영, 한창희, 허일환, 감사헌금(5명) 김봉신, 박효신, 장덕훈, 최현수, 익명, 성소후원금(11명) \$35.00
주일헌금	1,168.00	
감사헌금	650.00	
2차헌금	741.00	



◆ 대림절 ◆ 한자(待臨節) 라틴어(adventus) 영어(adven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성탄 전 4주간을 말한다.

옛날에는 장림절(將臨節)이라고 하였다. 서방 교회에서는 대림절의 첫날은 성 안드레아 축일(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일요일이었으나 동방 교회에서는 좀 더 빠른 11월 중순부터 이 절기가 시작된다. 대림주일(主日), 즉 대림절이 시작되는 일요일은 교회력(教會曆), 즉 전례주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로마에서 대림절은 교회력의 구성부분으로서 이미 그레고리오 대교황(재위 : 590~604) 시대에 나타난다. 로마에서나, 로마전례를 채택한 지방에서는 대림절을 5주간 내지 4주간으로 한하고 있다. 로마에서는 12월의 4계(季)의 단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가장 훌륭한 대림절의 전례문으로 꾸며져 있었다.

4계(季)의 수 · 금요일에는 성탄을 준비하는 신비가 특히 강조되었다. 대림절은 사순절과 같이 엄숙하게 지켜지기는 하지만 사순절보다는 덜 엄격하며 서방 교회에서는 더 이상 단식을 하지 않는다. 축제를 지내는 관습도 지양되었으며 사제는 자줏빛 제의(祭衣)를 입는다.

《로마전례서》에 따르면 ‘하늘 높은 곳에는 천주께 영광’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대영광송이 미사에서 생략됨으로써 이 절기의 근엄한 성격을 나타낸다. 이 기간은 성탄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이사야서와 세례자 요한의 경고 등이 독서로 채택되고 있다. (가톨릭대사전에서)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페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페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에육)	백양·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7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에실) ☎213-500-9393	Immanuel Dumplings 임마누엘 만두 고기, 김치, 낙지, 고기&김치, 프로배지 만두. 이경은(소화테레사) ☎323-636-2577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릭)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곳은 뚫어드리고 뚫린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욱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가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아고보) 생명/은퇴연금/로딩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